
2024년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시행계획

근거 :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(2024~2028)

2024. 3.



농림축산식품부
전략작물육성팀

순 서

I. 계획의 수립 배경	1
II. 추진실적 및 보완 필요사항	2
III. 쌀가공산업 육성 기본방향	10
IV. 2024년 과제별 추진계획	11
V. 추진 일정	19

I

계획의 수립 배경

1 수립 배경

- ☐ 「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」 수립
(‘24.1월)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필요
 - (법적근거) 「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
 - ※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☐ 쌀 가공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쌀 소비를 **활성화**하는 동시에 가정간편식, 글루텐프리 등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이 가능한 유망 산업
 - * 가구 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(kg) : (‘93) 122.1 → (‘23) 56.4
- 1인 가구 증가, 식문화 변화 등으로 밥쌀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, 즉석밥 등 쌀 가공식품 소비는 증가 추세
- 국내외 쌀 가공산업 시장은 확대 추세로, 향후 간편·건강식 관심 증대 등 다양한 기회요인이 존재하여 시장 저변이 넓어질 전망
- 한편, 밀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원료인 가루쌀의 본격적 생산은 쌀 가공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

2 추진 경과

- ☐ (‘11.11월) 쌀가공산업법 제정(‘12.5월 시행)
- ☐ (‘14.10월) 제1차 쌀가공산업 및 쌀 이용 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
 - *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(‘14~‘18)
- ☐ (‘19.6월) 제2차 쌀가공산업 및 쌀 이용 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
 - *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(‘19~‘23)
- ☐ (‘24.1월) 제3차 쌀가공산업 및 쌀 이용 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
 - *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(‘24~)

1 2023년 추진실적

[미래 유망분야 발굴 · 지원]

-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*하여 유망한 쌀 가공업체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정비

* '규제·제도 개선 모니터링반' 및 '가공용 쌀 수급관리시스템'을 통해 의견을 상시 접수하고 가공업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 적극 파악

-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세법개정을 추진하여 식품제조업체 공제한도 상향* 일몰기한 2년 연장('23.12 → '25.12)

* 법인사업자 : 40% → 50%, 개인사업자 : 45~65% → 55~75%

- 양곡가공업 중 '쌀가루 제분업'에 대한 시설 기준을 신설(양곡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3]) 하여 '쌀가루'에 적합한 시설 기준 적용

* '옥수수나 그 밖의 곡분'과 통합되어 있던 '쌀가루' 제분업 시설 기준을 구분·신설하여 분쇄장치와 체장치만 갖추면 되도록 시설기준 완화

- 해외 바이어 매칭 기회 확대, 수출협의회 운영 등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으로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 추진

- 수출 주요 국가별 특화전략 수립·지원 및 한류 마케팅으로 쌀 가공식품(떡볶이, 냉동김밥 등) 수출액 증가(aT)

- (미국) 건강기능식품(글루텐프리) 및 냉동김밥 등 수요증가에 따른 온·오프라인 유통채널 판촉 등 소비자 접근성 확대

* 현지 대형 유통매장 대상 오프라인 판촉 및 현지 행사 연계 소비자 홍보 추진

* 미국 가공밥 및 떡류 수출실적 : ('22) 77,930천\$ → ('23) 105,020천\$ (34.8%↑)

- (일본) 인기 품목인 떡볶이·막걸리 등에 대한 오프라인 판촉을 강화하고 한류 활용 마케팅을 통해 핵심소비층인 MZ세대 집중 공략
 - * 최근 수출이 늘고 있는 가공밥(죽, 냉동김밥등)에 대한 소비자 체험행사 및 판촉 지원
 - * 일본 가공밥 수출실적 : ('22) 217천\$ → ('23) 301천\$ (38.9%↑)
 - (중국) 세대별·품목별 맞춤형 마케팅 강화 및 신 유통채널 발굴로 쌀 가공식품 유통기반 확대 지원
 - * (온라인) SNS 인플루언서 영상콘텐츠 제작·배포, 드라마 연계 K-FOOD PPL 등 맞춤형 홍보 (오프라인) 고급매장 연계 프리미엄 유아용 쌀과자 판촉 E-Sports(LQ) 행사 연계 소비자 체험행사 개최 등
 - * 중국 쌀과자 수출실적 : ('22) 682천\$ → ('23) 878천\$ (28.8%↑)
 - (기타) 소비 트렌드(할랄·간편식·글루텐프리 등) 변화에 맞는 유망품목 발굴 및 현지 한류행사 연계 소비자 체험 홍보(떡볶이 등) 강화
- 쌀 및 쌀 가공식품 관련 해외 시장정보 수집·제공 및 공동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수출협의회 운영
- 쌀가공식품 국내외 시장 및 글루텐프리 시장 동향 등 해외정보 전파*
 - * KATI(수출입통계시스템) 및 TRASS(한국무역통계진흥원) 시스템 활용
 - 쌀가공식품 수출협의회 공동브랜드(korecipe) 활용 마케팅*을 추진하고, 해외 바이어 초청 등 프리미엄 쌀 가공식품 신시장 개척 지원
 - * 공동브랜드 패키지 개발·상표권 출원(일본, 베트남), 유통매장 연계 판촉(독일) 등
- 국내·외 쌀가공식품 바이어 DB(약 1 만5천명) 활용하여 쌀가공업체와 매칭하고, 해외바이어 온라인 상담회(2회*) 운영으로 제품 홍보
- * 쌀가공식품산업대전(5.30~6.2/경기 킨텍스) 및 해외 바이어 온라인 상담회 개최(9월)

[산업 혁신기반 강화]

- 쌀 가공산업 활성화, 정부재고 관리 등을 위해 가공용 정부양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, 도정공장 시설개선 유도 등으로 품질 제고 추진
 - 코로나19 완화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'23년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량은 전년 대비 34천톤 증가한 342천톤
 - * 가공용 쌀 공급량 : ('20) 317천톤 → ('21) 316 → ('22) 322 → **(23) 356**
 - '가공용 쌀 수급 관리시스템'을 통해 매월 수급 현황 파악 및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별공급된 쌀에 대한 부정 유통 여부 점검
 - * 정부양곡 용도별 배정량, 제품생산 현황, 판매처 및 판매량 등 입력·관리
 - 정부양곡 도정공장('23.3. 120개소)에 대해 시설 수준 등에 따라 'S·A·B·등외' 등급 설정, 가공료 차등 등으로 시설개선 유도
 - * S등급 48개소, A 51, B 20, 등외 1 / S등급 가공료는 A등급 대비 8.8% 높은 편
 - * B급 도정공장은 '24.3월까지 한시계약 후 등급 변동 없을 시 계약 해지
- 쌀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·규모 확대, 운영 지원, 전문인력 양성, 관련 통계 정비로 자체 역량 강화 지원
 - 쌀가공업체에 시설·개보수, 운영·수매자금을 융자(연 500억원) 지원
 - 정부양곡 도정업체 통폐합을 위해 융자지원 규모를 조건부 확대*
 - 원자재 가격·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쌀 가공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자금 대출 상환 유예** 시행
 - * 노후 도정공장 통폐합 추진을 위해 통폐합의 경우 지원한도 15 → 25억까지 상향
 - ** '23년 내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연체가 발생한 대출원금의 상환기일 1년간 유예

-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중소 식품 제조·가공 업체의 위생안전 및 품질개선 컨설팅 지원*을 통한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기반 구축

* 컨설팅 지원 분야 : [위생안전] HACCP, GMP지정 획득, 식품안전시스템 구축, [품질개선] 공정개선, 상품 품질개선, 브랜드·포장디자인, 품질인증 등 신규분야 추가 지원

- 쌀가공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·수요자 중심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교육 지원 및 업무역량 강화 추진

* ('23: 297명) 글루텐프리식품 인증 실무(25명), 농식품 트렌즈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(36명), 우리술 전문가 양성(31명), 원료 쌀 구매 관리(192명), 수출무역 실무(13명)

- 쌀 가공산업 현황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'21년 기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명부 활용 모집단 적격률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

* (조사내용) 전체(품목별) 시장규모, 조사자 현황, 쌀 사용량, 매출액 등

- 가공용 쌀 품종·소재 기술 개발 및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고 원료곡 단지 조성을 확대하여 신수요 창출 추진

- (가루쌀) 수발아 개선 품종 개발 및 전문생산단지 조성·관리 지원

- 4개도·22개 시군에 '23년 가루쌀 생산단지 38개소를 조성

- 수발아 향상 우량계통 선발 및 지역적응성 검토

* 전주695호 : ('23~'24) 지역적응시험 → ('25) 품종 출원 → ('26~'27) 종자 분양

- 생산단지(38단지 2천ha)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지원단 구성 및 관리

* 시기별 교육기술지원, 침수병해충수발아 실시간 현장 점검, 드론활용 파종~수확전 생육점검

- 밀 제분설비 이용 가루쌀 제분 특성* 규명(농진청-사조동아원)

* 분획별 이화학 특성, 회분함량 따른 용도 설정 및 제분비용 산출

○ (가공용쌀) 기술이전 업체 등 산업체와 연계한 가공용 원료곡 생산단지 확대*

* 원료곡 생산단지(ha) : ('19) 1,113 → ('20) 1,651 → ('21) 2,000 → ('22) 2,500 → ('23) 2,800

- (단지현황) 한아름찰(14개단지), 미호(5), 미르찰(3), 진흑찰·진흑메(1)

* (한아름찰) CJ 브리딩 전용실시('17~'23), 재배면적 ('17) 15ha → ('23) 900

* (미호) 해남 화산농협 100ha 재배(이마트 도시락 제조 등 활용)

※ 화산농협 RPC : GS, 이마트 등 쌀 7,000톤/연 공급

* (미르찰) 익산 명천 RPC ('23) 50ha → ('24) 100ha(SPC그룹 제과·제빵 활용)

※ (수매) (23) 333톤(동진찰 매입가의 90%) → (납품) (주)SPC → (공급) 파리바게트, 던킨도너츠 등

- 가공용 벼 이용성 증진을 위한 가공적성 검정 및 품질기준 설정

* ①산업체 연계 냉동 볶음밥 가공적성 검정(풀무원 공동), ②미르찰, 향미 등 가공용 벼 가공방법 개선, ③가공밥 유형별 품질기준 설정(즉석밥, 김밥, 도시락 등)

○ (기술확산)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기술 소개자료를 작성·배포 (114건*), 우수성과 현장 확산을 위한 맞춤형 기술 설명회** 개최 (9회) 등 기술마케팅 지원

* 농업분야 국유특허권 기술목록집(약 4,450건) 중 '쌀 함량이 높은 맥주제조방법' 등 114건의 쌀 가공기술수록

* 기술설명자료 온라인 상시 노출, 대면/비대면 1:1 상담 진행

- 농식품산업체 기술이전(104건)을 실시하고 제품 모니터링 및 홍보 지원

* 농진청 최다 기술이전(863건) 전수교육 확대 운영, ('22) 3회 → ('23) 7회

[수요기반 확대]

□ 미래세대 대상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쌀 중심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 지원

○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원에 아침밥을 제공하여 대량수요처 쌀 소비 촉진 및 아침 식습관 확립 추진

* 참여학교/식수인원 : ('20년) 14개교/12만명 → ('21) 26/35 → ('22) 28/49 → ('23) 144/233

* ('23 만족도 조사) 아침밥의 중요성 인식 : 90.4%, 아침밥 섭취 의향 : 89.6%

- **어린이 대상 식량 중심 식습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 및 관심유도를 위해 곡물체험학교(53개), 식량정보센터(어린이 직업체험관 : 키자니아) 운영**

* 곡물 중심 식습관 : 53개교 9,249명, 벼·콩 재배키트 제공, 교육콘텐츠 지원 등 추진

* 식량정보센터 체험인원 수 : ('22년) 23,955명 → ('23) 25,181(전년 대비 5.12%↑)

- **쌀 가공식품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온·오프라인 소비촉진 홍보를 실시하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소비기반 확대 추진**

- **유통기업과 함께 아침밥 캠페인* 등을 통한 아침 식습관 형성 및 쌀 소비 촉진 유도**

* 아침밥 캠페인 연계 쌀 소비 창출(320,300판매, 48톤 쌀 소비), 아침밥 인증 114,121회

- **쌀맛 나는 식당 및 식량작물 아이디어 공모전 등 대국민 참여 사업*, 농업인단체·농협 합동 쌀 소비 행사**(4~12월)를 통한 인지도 제고**

* 쌀맛 나는 식당(154개소 접수, 30개소 선정) / 식량작물 아이디어 공모전(354건 접수, 24점 시상)

** 쌀의 날 행사, 전국 쌀 대축제,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연계 쌀 소비촉진 전시관 등

- **방송·신문(기획기사, 지면광고 등)을 활용한 쌀 소비 촉진 홍보, SNS 활용 쌀의 영양학적 가치 등 정보 확산(387건)을 통한 긍정인식 확산**

* 쌀·쌀 가공식품 호감도 : ('22년) 78.5% → ('23) 78.8(전년 대비 0.3%p ↑)

* 쌀 식습관 구매 행동 긍정변화: ('23년) 70.8%(전년 대비 2.1%p ↑)

* 쌀 특성아해도 : ('23년) 80.1%(전년 대비 0.5%p ↑), 가루쌀 인지도 : ('23년) 35.7%(전년 대비 14.1%p ↑)

- **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산업대전 개최(5.30.~6.2.), 우수 쌀 가공품선정·마케팅 지원 품평회(쌀플러스) 운영으로 쌀 가공산업 소비시장 확대**

* 산업대전 : 상담매칭 1,242건, 57,051천\$ (전년 比 151%↑) / 품평회 : 판매전 매출 49억원

2 보완 필요사항

- 미래 유망분야 집중 육성으로 쌀 가공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마련
 -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라 가정간편식, 건강기능식품(메디푸드, 글루텐프리) 등 쌀 가공산업 유망품목에 대한 발굴·육성 필요(농진청, aT, 쌀가공식품협회)
 - ⇒ 가공밥·떡류·쌀음료 등 10대 유망품목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쌀 가공산업 육성 및 국내외 시장 확대 필요
- 가루쌀 관련 중간소재 산업·유통 등 산업체계를 확립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여 안정적 생산 지원
 - 가루쌀 보급 확대를 위해 '바로미2' 단점 보완 품종 조기 보급 및 품종의 다양화 필요(농진청)
 - ⇒ '바로미2'의 단점인 수발아·저장성을 보완한 우량계통 현장평가를 추진하고 유용형질을 가진 가루쌀 신품종 정밀 육종 추진
 - 가루쌀의 경우 시장 초기 단계로 안정적 생산과 함께 대규모 소비 기반 마련을 위한 제품개발 지원 및 인식제고 필요(전략작물육성팀)
 - ⇒ 식품·외식업계 대상 제품개발 지원 확대로 원료 소비시장을 조성하고, 소비자 중심 홍보 강화로 인지도 향상 추진
- 국가별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한류 등을 활용한 차별화 마케팅으로 쌀 가공식품을 K-food 대표 수출품목으로 육성
 - 쌀 가공식품 수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규모가 영세하여 해외 바이어 유치 및 현지시장 공략 등 판로 개척에 애로(aT, 쌀가공식품협회)
 - ⇒ 권역별 주요 수출 국가 및 전략품목별 특화 전략을 수립하고 업체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 확대 추진

- 막걸리(일본), 쌀음료(베트남) 등 일부 품목은 저가 현지 생산제품 등과 가격 및 시장경쟁이 심화되어 수출 감소세(aT)

- ⇒ 수출 감소국가 대상으로 현지 수요에 적합한 신제품을 발굴하고 상품화 지원 및 한국산 차별화 마케팅으로 수출 지원 필요

□ 정부양곡 관리체계 강화 및 가공용 쌀 민간 신곡 수요 확대 지원

- 쌀 수급 상황 및 정부 양곡 재고량에 따라 변동성이 커 정부양곡 공급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상황(식량정책과, 전략작물육성팀)

- ⇒ 업체가 원료사용계획을 예측할 수 있도록 업체별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의존도 완화를 위한 민간 신곡 수요 확대 지원

□ 소비자 맞춤형 콘텐츠로 쌀 인식 개선 및 소비 기반을 확충하고 정확한 통계 생산으로 활용성 제고 추진

- 소규모·단발적인 홍보·마케팅으로 쌀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구매 유인을 제공하는 데 한계(농정원, 쌀가공협회)

- ⇒ 세분화되는 소비자 기호에 맞춘 홍보·마케팅과 다양한 유통망을 활용한 판촉으로 소비자 점점 확대 추진

- 쌀 가공산업 관련 통계가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고 품목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데이터 정확도 및 활용도 제고에 한계(쌀가공산업협회)

- ⇒ '19년부터 실시중인 '쌀가공산업 현황조사'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가승인통계 등록을 추진하여 통계 활용성 제고

III

쌀가공산업 육성 기본방향

목표

◇ 쌀가공산업 성장세의 안정적인 견인과 국내·외 시장다각화로 쌀 소비기반 확충

- [시장확대] 매출액: ('22) 8.4조원 → ('28) 17(연 12%↑)
- [수급균형] 쌀 소비량(주정용 제외): ('22) 57만톤 → ('28) 72(연 4%↑)
- [수출강화] 수출액: ('22) 180백만\$ → ('28) 400(연 14%↑)

세부 추진 과제

① 미래 유망분야 집중 육성으로 성장동력 마련

- 쌀가공산업 10대 유망품목 집중 육성
-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

② 국내·외 수요기반 확대

- 글루텐프리 인증기업 육성
- K-Food 대표 수출품목으로 육성
- 소비자 구매 접점 · 경험 증대

③ 산업 성장기반 고도화로 경쟁력 제고

- 원료 공급체계 강화
 - 정부양곡 안정조달 및 품질 향상
 - 민간 가공용쌀 생산 · 유통 촉진
- 시설 · 경영 개선 지원
- 10대 산업 혁신기술 R&D 추진
- 정확한 통계 · 정보 제공

1 미래 유망분야 집중 육성으로 성장동력 마련

- 가정간편식,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자 선호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쌀 가공산업 10대 유망품목 집중 육성(농진청, aT, 쌀가공식품협회)
- (가공밥·죽류) 간편함·건강한 이미지를 강점으로 가공밥·도시락·김밥 등 쌀 활용 가정간편식(HMR) 소비시장 육성 및 수출 시장 확대
 - 제품에 사용되는 다수확 쌀, 수입쌀을 고품질 쌀로 전환을 유도하고, 기능성 쌀* 사용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프리미엄 시장 확대
 - * 기능성쌀: 도담쌀(체중관리, 당뇨관리), 눈큰흑찰·고아미2호(체중관리), 조생흑찰(위염경감) 등
- (떡류) 떡볶이를 중심으로 K-culture와 연계하여 K-Food 대표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고, 냉동떡 다양화로 간편식 시장 진입 확대
 - 현지 한류축제 내 소비자 체험행사장을 운영하고 대형 유통매장 연계 오프라인 판촉 및 온라인 한국식품관 입점 등으로 시장확대 지원
- (주류·음료) 젊은 층의 주류 소비문화에 맞춤형한 '쌀 증류주' 시장과 쌀 성분을 활용한 대체 유제품, 음용식 식사대용품 시장 신규 육성
 - 쌀 활용 대체 유제품(쌀 우유·요거트 등) 개발 및 판매를 촉진하고, 간편식 수요자, 유당·글루텐 불내증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
 - * 가루쌀 활용 대체유(라이스밀크) 개발·판매(신세계푸드, '24~)
- (면·빵·과자류) 헬시 플레저(Healthy pleasure), 뉴트로 소비 경향에 맞춰 쌀빵·쌀국수·쌀과자 제품개발 지원 및 시장 육성
 - 가루쌀 등 면·빵·과자 등 가공 전용 쌀을 재배하는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식품기업과 연계하여 가공용쌀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
 - * (R&D 과제) 글루텐의 탄성·부품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기술 개발, 기존 밀 제품의 맛·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쌀가루 최적 혼합비율 구명 및 표준화 등

4대 전략 및 10대 유망품목 육성					
4대 전략	1. Simple & Easy : 다양한 쌀 간편식품 시장 확대(간편 가공밥, 냉동떡 등) 2. Healthy : 쌀의 건강한 이미지를 활용한 글루텐프리, 비건, 고령친화식품 등 육성 3. Global : K-Food 수출의 대표 산업으로 육성 (냉동김밥, 떡볶이 등) 4. New-tro : 전통에서 젊은 층이 좋아하는 새로운 제품 발굴(쌀 증류주, 약과 등)				
10대 품목	가공밥·죽류 * 목표(십억원) (22) 2,659 → (28) 4,387	떡류 * 목표(십억원) (22) 2,317 → (28) 4,537	주류·음료 * 목표(십억원) (22) 1,718 → (28) 3,391	면류 * 목표(십억원) (22) 113 → (28) 476	빵·과자류 * 목표(십억원) (22) 231 → (28) 974
	① 간편 가공밥죽 ② 도시락·김밥	③ 떡볶이 ④ 냉동떡	⑤ 쌀 증류주 ⑥ 쌀 음료	⑦ 쌀국수 ⑧ 혼합면	⑨ 쌀빵 ⑩ 쌀과자
주요 수단	▶ 식품·유통업계와 연계한 품목별 특화 홍보·마케팅 추진 ▶ 글루텐프리 인증기업 육성 으로 쌀가공식품 품질 및 인지도 제고 ▶ 해외소비자 대상 K-Culture(K-Pop, 예능·드라마) 연계 판촉 으로 국외판로 확대 ▶ 업계 수요를 반영한 쌀 가공식품 10대 핵심기술 R&D 추진 ▶ 가루쌀 등 가공용 쌀의 안정적 원료 공급체계 강화 ▶ 육성자금 확대 및 시설·경영 개선 지원으로 업체의 재투자 여건 개선				

□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가루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
생산-유통-소비에 걸친 산업 가치사슬 강화(전략작물육성팀)

○ (식품산업) 가루쌀의 수요를 수입 밀 대체와 함께 새로운 식품으로 확대하고, 제조업체 중심에서 외식업체로 시장 저변 확대

* 제품화 참여기업: ('23) 15개 → ('24) 30 → ('25) 35 → ('26) 40 → ('27) 45

○ (제분·소재화) 중간소재(분말)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제분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통 기준 마련, 기술 개발, 유통 규모화 추진

○ (유통) 가공용 쌀 소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가루쌀 원료의 매입·방출 규모를 시장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유지

* 가루쌀 공공비축 매입 규모: ('23) 1만톤 → ('24년) 5만 톤 수준

○ (홍보·판촉) 국내외 유통·외식업체,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가루쌀 제품에 대한 업체·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소비 기반 확대

2 국내·외 수요기반 확대

- 글루텐프리 인증기업 육성을 지원하여 쌀 가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소비자 대상 홍보·마케팅으로 인지도 제고(쌀가공식품협회)
- (인증지원) 국내·외 글루텐프리 인증 등록에 필요한 제품성분 시험·분석, 컨설팅, 현장 심사비 등을 지원
 - * ('24 시범) 5개 업체 내외, 업체당 4백만원 한도(국비 50%, 자부담 50%)
- (판촉) 국내외 주요 박람회에 한국글루텐프리인증 주제관 운영*으로 국내·외 주요 바이어 대상 인지도 제고
 - * (국내) 쌀가공식품대전(6월, 킨텍스), (해외) 폴란드 포즈난 식품 박람회(9월)
- (국제화) 한국 글루텐프리 인증표준의 국제 규격화를 통한 상호 인정 기반 마련 및 국제적 신뢰도 제고
 - * KS Q ISO/IEC 17065 요구조건 충족 및 KOLAS 제품인증기관 등록 추진 등
- (정보제공) 글루텐 프리 인증 등록절차·시험법·검사규정·판로확충 등 글루텐프리 시장 관련 정보소식지 발간·제공
 - * 향후 비건·할랄 등 유망시장 전반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

<국내 글루텐프리 식품 인증 현황>

- 글루텐프리 식품 단체표준 및 인증기관 지정('21)으로 한국글루텐프리 인증 제도기반 마련

※ 한국글루텐프리(KGFC) 인증 개요

- (표준명) 글루텐프리식품 단체표준/SPS-H-KRFA-7426
- (인증기관) (사)한국쌀가공식품협회
- (심사기준) 글루텐 함량 **20mg/kg(20ppm) 이하**
 - (미국) 무글루텐 인증기구 GFCQ(10ppm↓), 쌀면역자원협회 CSA(5ppm↓),
 - (유럽) 유럽셀리악협회 AOECs(20ppm↓), BRCGS(20ppm↓)



한국 글루텐프리
인증 로고

* '24.1. 기준 8개 업체, 40개 제품 인증완료 후, 해외 수출 진행(또는 준비) 중

□ 주요 수출 국가·품목별 특화 전략을 수립하고, 업체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쌀 가공식품을 K-FOOD 대표 수출품목으로 육성 (aT, 쌀가공식품협회)

○ (전략적 지원) 쌀가공식품 중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·육성하고, 생산(상품화)부터 해외인증, 홍보·마케팅까지 맞춤형 지원 강화

* 글루텐 프리(서유럽북마호주), 프리미엄 영유아식품(중국미국), 한류연계(서유럽북마신남방호주)

○ (한류문화 연계) 쌀가공식품산업대전 등 수출 사업을 K-culture 콘텐츠와 연계하여 해외바이어 및 소비자 대상 쌀가공식품 인지도 제고

- 문체부와 협업하여 드라마 등에 우수 수출제품을 홍보(PPL)하고, 해외홍보관(UAE)* 활용 농식품 전시·홍보 강화

* (문체부) 간접광고 제작·송출, (농식품부) 지원기업 선정, 간접광고 활용 홍보·판촉 등

** UAE(두바이) 주요 쇼핑몰에 콘텐츠, K-Food 등 전시·체험·판매 가능한 홍보관 설립

○ (조직화·규모화) 쌀가공식품 수출협의회('20.1월 구성, 83개 업체)를 통한 공동마케팅(판촉행사, 마켓테스트 등) 유도, 박람회 참가 등 지원

- 쌀가공식품 공동브랜드(KORECIPE, '21) 상표권 출원을 바탕으로 신규 수출기업을 위한 판로 공동활용, 공동 마케팅 등 수출 확대에 협력

○ (정보제공) 수출기업 대상으로 쌀가공식품 관련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 조사·제공(수시)을 확대하고 이슈 보고서(분기별) 등 발간

- 냉동김밥, 떡볶이, 막걸리 등 주요 쌀가공식품의 소비트렌드 분석, 경쟁제품, 소비자 인터뷰 등 수출업체 맞춤형 정보 조사·제공

○ (제도정비) 쌀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보완한 내용으로 「쌀가공산업법」 및 「쌀가공산업법 시행령」 개정·시행*

* 해외 전시회참가, 공동마케팅, 수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근거 명확화

□ 세분화 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홍보·마케팅을 추진하고 다양한 유통망을 활용한 쌀 가공제품 판매 지원으로 소비자 구매 점점 확대 (농정원, 농협, 쌀가공식품협회)

○ (식습관 형성) 미래세대를 포함한 전국민 대상 맞춤형 식습관 체험 교육으로 쌀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건강한 쌀 소비문화 형성 지원

- (천원의 아침밥) 지원규모 및 단가 등을 대폭 인상하여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 대상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쌀 소비 유도

* 지원예산/학교/인원 : ('23) 25억원/144개교/233만명 → ('24) 93억원/186개교/450만명

- (모두의 아침밥 캠페인) ①쌀의 날(8.18)과 연계, 유통업체(편의점) 등과 함께 김밥, 도시락 등 쌀을 주 원료로 하는 제품을 아침시간에 할인 판매 지원, ②아침시간대 쌀을 주 원료로 하는 식사를 인증한 참여자에게 이벤트 캐쉬를 제공하는 '매일 온국민 아침밥 챌린지' 운영

- (체험학교) 유·아동 대상 쌀·쌀 가공제품에 대한 체험기회 확대

* 쌀맛나는 학교 : ('23) 53개교/9,249명 → ('24목표) 60개교/10천명

* 쌀체험홍보관(직업체험) : ('23) 25,181명 → ('24목표) 26천명

○ (소비촉진 홍보) 쌀소비 공모전·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쌀 기념일 행사 등 온·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여 쌀의 긍정적 가치 확산

- (쌀 기념일) 백설기·쌀·가래떡 등 각종 기념일*에 맞춘 시식·홍보 행사와 생산자단체, 지자체 참여를 통한 지역 쌀 소비 행사 추진

* 백설기데이(3.14.), 쌀의날(8.18.), 가래떡데이(11.11.) 등

- (쌀 홍보) 쌀·쌀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제품 체험 기회 확대로 쌀의 영양학적 가치 확산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

- (체험) 가칭 '쌀가공식품 갤러리' 운영을 추진하여 쌀 가공식품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공간 마련 추진

* 주요 쌀 가공식품(쌀플러스 등) 전시·판매, 떡볶이 등 K-Food 쿠킹클래스·시식 체험 등

- 정부양곡 공급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·보완으로 원료의 수급 예측가능성 제고 및 품질 향상(식량정책과)
 - 정부 재고,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년 공급실적(356천톤) 대비 소폭 증가한 **360천톤**(가루쌀 10천톤 포함) 공급
 - * 가공용 쌀 공급량 : ('20) 317천톤 → ('21) 316 → ('22) 322 → ('23) 356 → ('24p) 360
 - 정부 재고 관리 및 국내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공급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
 - '가공용 쌀 수급 관리시스템'을 통해 매월 수급 현황 파악 및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별공급된 쌀에 대한 부정 유통 여부 점검
 - * 정부양곡 용도별 배정량, 제품생산 현황, 판매처 및 판매량 등 입력·관리
- 품목별 가공적성에 맞는 품종 육성 및 계약재배 지원으로 민간 가공용쌀 생산·유통 촉진(식량정책과, 전략작물육성팀, 농진청)
 - (가루쌀) 새로운 식품 원료를 활용한 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가루쌀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균일한 품질의 가루쌀 대량생산 지원(전략작물육성팀, 농진청)
 - 가루쌀 생산단지의 공동영농 및 공동영농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·컨설팅* 및 시설·장비** 비용 지원
 - * ('23) 600백만원(30개소×30백만원×국비50%) → ('24) 1,950백만원(130개소×30백만원×국비50%)
 - ** ('23) 2,500백만원(10개소×500백만원×국비50%) → ('24) 7,500백만원(30개소×500백만원×국비50%)
 - 원료곡의 안정생산을 위해 내수발아성과 수량성 등을 개선한 가루쌀 전용 신품종 개발·보급 추진
 - 국립종자원과 협력하여 '바로미2' 보급종 생산으로 가루쌀 생산단지 농가에 안정적인 종자공급
 - * ('24) '바로미2' 보급종(950톤) 생산 채종단지(189ha) 구축(종자원)

- (가공용쌀) 용도별(즉석밥, 도시락, 냉동밥 등) 가공적성이 적합한 가공용 벼 신품종을 개발하여 쌀 가공산업 기반 구축 지원(농진청)
 - 가공용 벼 원가절감을 위해 통일형 벼 형질 도입(찰벼, 저아밀로스, 고아밀로스 등) 신품종 개발 강화
 - 가공업체 연계 가공용 원료곡 생산단지 확대
 - * 원료곡 생산단지(ha) :('20) 1,651 → ('21) 2,000 → ('22) 2,500 → ('23) 2,800 → ('24) 3,000

□ 자금지원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시설·경영개선 지원으로 쌀 가공업체 경쟁력 제고(전략작물육성팀, 쌀가공식품협회, aT)

- (자금) 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원료구매, 시설 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쌀가공육성지원자금 규모를 지속 확대 추진(전략작물육성팀)
 - 계약재배 기업, 신시장 창출, 수출 기업 등에 대해 지원우대 추진
- (컨설팅) 쌀가공업체 대상 식품 위생안전(HACCP 인증 등) 및 품질 개선 분야에 대한 컨설팅 통합 지원(aT)
 - * 컨설팅 지원 분야 : [위생안전] HACCP, 식품안전시스템 구축, [품질개선] 공정개선, 상품 품질개선, 브랜드·포장디자인, 품질인증 등 신규분야 추가 지원
- (인력)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내 교육 전문기관*과 연계한 실습 교육과정 강화(쌀가공식품협회)
 - * 떡 제조 분야 국가기술자격 교육 전문기관, 농관원 지정 전통주 교육훈련 기관 등
- (규제개선) 쌀가공식품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·제도 개선 추진(쌀가공식품협회)
 - 가공용쌀 공급관리시스템 내 규제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상시 접수 체계 마련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
 - * '24년 상반기 내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하반기부터 신고센터 운영

□ 쌀 가공식품 트렌드에 맞추화된 10대 핵심기술 R&D를 지원하고
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체계 강화(농진청, 농기평)

○ (10대 과제) 가루쌀 육성 기반기술, 수출 시 품질유지 기술 등 신
시장 창출에 필요한 쌀가공식품 10대 핵심기술*선정 및 R&D 지원

* ①가루쌀 등 가공 전용 품종, ②쌀의 건강기능성 규명 및 제품 개발 지원,
③가정간편식 제조기술, ④제품별 쌀가루 혼합비율 규명, ⑤가루쌀 가공기술 개발,
⑥수출 시 품질 유지 기술 개발, ⑦쌀 활용 주류산업 육성 기술, ⑧ 쌀 활용 발효
물질 개발 및 제품화, ⑨ 글루텐 대체 기술 개발, ⑩ 쌀 부산물 활용 기술

- 수발아 개선 ‘전주695호’ 재배농가* 및 가공업체 현장평가

* 4개 지역(평택, 익산, 부안, 남원), 각 0.4ha ※ 가공평가 원료곡으로 활용

- ‘바로미2’ 단점보완 계통육성 및 생산력 검정

* 전주617호/바로미2 조합 활용하여 신규 교배 조합 작성 및 유망계통 약배양 실시

* 고세대 유망계통 새미면/분질초다수//Lox3- 등 예비생산력검정시험

- 부품성 개선 후보 7계통 종자증식 및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

- 가루쌀 혼합에 따른 부침개 등 품질변이 수용범위 및 우수성 검토

* (분석) 흡유율, 전분소화율, 열량, 물성, 부재료 첨가에 따른 기호도 등

- 가루쌀 소비확대를 위한 가공법*, 제분기술 및 글루텐 프리 기술 개발 등

* 가루쌀을 활용한 저당 및 노화 지연, 저항저분 소재화 기술 개발 등

- 다이어트용 쌀 개발을 위한 저혈당지수 육종 소재 탐색

* 통일형 벼 ‘신갈’의 전분 생합성 관련 유전자 돌연변이 및 혈당지수(동물실험) 등 분석

※ 혈당지수 :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서 얼마나 당질로 변환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

- 가정간편식용 쌀 원가절감을 위한 통일형 저아밀로스 육종소재 개발

-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 소개자료를 작성·배포하고 맞춤형
기술설명회, 시제품 제작 비용 등 기술사업화 지원

- 국내외 쌀 가공식품 시장규모, 동향, 소비자 인식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DB화, 통계생산·활용 기반 정비로 활용도 제고(쌀가공식품협회)
- (통계기반) '19년부터 실시중인 '쌀가공산업 현황조사'의 정확도·신뢰도를 제고하고 국가승인통계 등록 추진
 - * 향후 식품산업정보통계시스템(FIS)와 연계하여 정보제공 추진
- (제도정비) 쌀가공산업 통계조사를 현행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외 농식품부가 지정·고시하는 법인도 가능하도록 「쌀가공산업법 시행령」 개정
- (시장조사) 유로모니터와 연계하여 전세계 글루텐프리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, 전문가·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쌀가공산업 발전포럼 개최

V

추진 일정

- 2024년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시행계획 알림(4월)
- 2024년 과제별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(4월~)
- 추진 주체별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 제출(~12월)
- 추진실적 분석 및 보완을 통해 2025년 시행계획(안) 마련('25.1월)